

# '동방신기' 日 소속사, "향후 활동, 변경 없다"

양승준 · 입력 2009. 8. 1. 21:22 · 수정 2009. 8. 2. 09:51



▲ 그룹 동방신기

[이데일리 SPN 양승준기자] "동방신기, 현재 시점에서 향후 일본 활동 예정 스케줄에 대한 변경은 없다."

그룹 동방신기 일본 소속사인 에이벡스 엔터테인먼트(이하 에이벡스)가 그룹 세 멤버가 한국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에이벡스는 1일 그룹 공식홈페이지에 '일부 보도에 대해' 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동방신기 SM 소송 사태'에 대한 현지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에이벡스는 "어제(7월31일)한국에서 보도된 동방신기 문제에 대해 SM 측에 사실 확인을 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았다"고 현재 한국에서 불거진 문제에 대해 사태 파악 중임을 밝혔다.

이어 "팬 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여러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양해 부탁드립니다"고 현지팬들에게 거듭 사죄의 뜻을 전했다.

'SM 소송 사태' 후 동방신기는 1일 구마모토현 컨트리파크에서 열린 에이백스 소속사 가수들의 여름 축제 '에이-네이션 09'에 예정대로 참여했다. 이후 동방신기는 8일 에히메, 22~23일 도쿄, 29~30일 오사카 공연 등에서 일본 소속사 동료들과 함께 출연할 예정이다.

동방신기 멤버인 시아준수와 영웅재중, 믹키유천는 지난 7월31일 서울중앙지법에 SM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충격을 안겼다.

## ▶ **관련기사** ◀

[☞ 동방신기, 팬들과 약속한 공연은 예정대로](#)

[☞ 동방신기 멤버 3인 변호인 측, 3일째 공식 입장 표명](#)

[☞ 'SM 소송' 준수·재중·유천, 추후 활동은?](#)

[☞ 동방신기 vs 소속사 갈등에 팬들 "당혹...안타깝다"](#)

[☞ '동방' 준수·재중·유천, 'SM 소송' 갈등 이유는?](#)

< ©함께 즐기는 엔터테인먼트 포털 이데일리 SPN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